

**동우컬럼**

자존심을 버려라

테레사 수녀가 고아들에게 먹일 것을 얻으러 어느 빵 가게에 들어갔다. 테레사 수녀는 사연을 말하자 주인은 욕을 하면서 수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얼굴에 묻은 침을 닦으며 다시 주인에게 사정했다. “저를 위해서는 침을 주셨으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빵을 좀 주세요.” 이런 상황인데 아무리 표독한 자라도 어찌 빵을 주지 않겠는가. 그 주인은 얼굴을 붉히면서 테레사 수녀에게 빵을 주었고, 그것으로 하루 고아들의 식사를 해결하였다. 훗날 테레사 수녀는 그날의 일을 이렇게 추억했다. “내가 빵 가게에 간 것은 굶주린 아이들의 허기를 채울 빵을 얻기 위함이었지, 내 자존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위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
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자식을 살
릴 수만 있다면 자존심이 무슨 대수냐며 예
수님께 매달렸던 위대한 여인 말이다.

대인(大人)에게는 필요하다면 자존심 따위는 내놓는 대범함이 있다. 한(漢)나라의 개국공신인 한신 장군이 어린 시절, 살고 싶으면 바짓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라는 동네 강패의 말에 그대로 무릎을 꿇어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갔다. 살고 봐야 하니깐. 가장 크신 이, 예수님을 보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분이 자존심을 버리고 오로지 인류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 모든 수욕을 참고 견디셨다(히12:2).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받으셨다.

목적이 있으면 자존심을 버렸다고 자괴감
까지 들지 않는다. 자존심을 버리는 것도
목적을 이루는 한 수단이니까. 다윗이 사
울을 피해 도망하던 길에 블레셋 성읍 중의
하나인 가드로 피난하여 그곳의 왕인 아기
스를 찾았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는 왕에게 고했다. 상황을 파악한
다윗은 살기 위해 그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대문짝을 흔들고 갖은 미친 짓을 다 했다.
나도 교단의 주의 종들이 잘못했을 때 대
신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 교단을 살
려야 하니까.

목적을 이루려면 자존심을 버려라.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지난 18일, 중고등부와 대학청년연합 토요예배에 총회장 목사님은 멋진 가죽전퍼와 청바지를 입으시고 예배를 인도하셨다. “오늘 이 옷은 젊음을 입고 설교 하라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사준 옷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의 트렌디한 코디에 젊은이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이어 목사님은 ‘달인 별거 아니다, 반복이 달인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다.

“요즘 TV에서 유명한 ‘백종원’이라는 요리연구가를 잘 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음식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20여 개 갖고 있고, 전국에 매장이 1,000여 개가 넘

다. 사람들은 저에게 ‘어쩔 그렇게 귀신을 잘 쫓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에 해박하십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많은 시간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귀신을 쫓고, 반복해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따라 달인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바울, 모세, 다윗, 여호수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장신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쓰러집니다. 다윗이 단 한번의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무수한 시간 돌팔매질을 반복한 결과입니다.

얼마 전 몽골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

리 예수중심교회 젊은이들이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자들이 나올 것을 난 반드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각자의 재능을 연구하고 반복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달인이 됩시다.

단, 여기서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반드시 기한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없는 목표는 실패 없는 총, 돈 없는 지갑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나는 올해 서울성전건축을 이루고 말리란 기한을 설정하고 기도에 올인하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사 목표한 것을 이루려면 기한을 설정해야 긴장



대학청년부연합 토요예배(2025년 1월 18일 노량진교육관 대성전)

는 요식업 분야에서는 단연 선두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한 데에는 무수한 시간 음식을 먹어보고 반복해서 연구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달인(達人)이란 통달할 ‘달(達)’에, 사람 ‘인(人)’을 쓰고 있는데 전문분야에서 반복을 통해 통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 이후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유인즉슨 자신의 아들이 병어리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막9:29)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쫓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은 반복해서 귀신을 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그 중 ‘토야’라는 아이가 몽골인인데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기에 물었습니다. ‘토야야,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니?’ 그러자 토야는 ‘저는 매일 한국어를 반복해서 듣고 연습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제 수행 비서를 하고 있는 이지훈 전도사는 필리핀 유학시절 반복해서 영어를 하루 10시간 공부했더니 지금은 제 통역을 담당하며 영어에 능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축구로 정상에 오른 손흥민 선수, 피겨로 정상에 오른 김연아 선수도 무수한 반복의 시간으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상만사 반복하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것을 찾고 각자의 분야에서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여 통달한 자가 된다면, 정치, 경제,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우

감을 늦추지 않고 매진해갈 수 있습니다. 마냥 늦춰진 할 시위가 어찌 과녁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기한을 정하여 반복하고 반복하면 반드시 설정한 시한보다 더 빨리, 더 넘치도록 목적인 바를 이루는 전대미문의 기적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이아몬드는 수만 번의 세공을 통해 잡석에서 명작으로 그 가치를 드러낸다. 총회장 목사님은 대학청년 연합예배를 매주 인도하시며 예수중심교회 젊은이들을 다이아몬드처럼 세공하시고 영·혼·육의 달인(達人)화를 반복하고 계신다. 달인 별거 아니다. 반복하면 누구나 달인이 될 수 있다.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자. Repeat! Repeat! Repeat!

송현혜 생도

2025학년도 예수중심제자신학원 전기 신입생 모집

원서마감: 2025년 2월 16일(주일),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왕상10:1~12)

밀반찬이 좋아야 밥맛이 좋다

성공한 사람들은 휴먼 네트워크(human network), 곧 인맥 형성에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튼튼한 인맥은 성공의 디딤돌이고, 징검다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318인의 믿음과 정의의 용사들이 있었고(창14), 다윗에게는 용사 37인이 있었습니다(삼하23). 그들이 조력자이며, 인맥이었습니다. 요셉이 약관의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술관장과의 인맥형성의 결과입니다(창40).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12제자와의 인맥을 형성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70인과 인맥을 형성하고, 또한 성령 받은 자들과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휴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란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을 주관해주시지만, 그 관계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성경에는 그 처세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잠19:6). 선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집회에 나갈 때 선물을 활용합니다. 거금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것들인데, 그 효과가 엄청 큼니다. 대개 이태원에서 파는 우리나라 전통문양이 그려진 지갑이나 벵타이 같은 것들을 선물합니다. 집회를 주관하는 현지 목회자들과나 집회를 적극적으로 돕는 권력 및 재력가들에게 저는 벵타이를 선물하고는 직접 목에 매어 줍니다. 그리고 꼭한 마디를 덧붙입니다. “우리 변치 말고 주를 위해 같이 목을 땀시다.”라고요. 또 지갑을 선물하면서, “당신 평생에 재물이 마르지 않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꿈보다 해몽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선물로 받은 기쁨을 표현하며 더욱 충성을 다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잠18:16).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은 아라비아 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왕국의 스바 여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스바 여왕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많은 수행원을 대동하여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먼 길이라

고 빈손으로 텔레텔레 간 것이 아닙니다. 스바 여왕은 향품과 금, 보석을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역대하 기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향품이 전에는 없던 것이라고 말해 가장 좋은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솔로몬을 방문한 스바 여왕은 명불허전(名不虛傳)이라며 혀를 내둘렀고요. 이에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감동해서 스바 여왕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알게 했고, 스바 여왕이 갈 때 원하는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도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왕상10:13). 이것이 전례가 되었을까



총회장 이초석 목사

요 ? 국가 간의 정상인 만남 때면 선물 교환이 먼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의요,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택에 보내는 예단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현대그룹의 명예회장이었던 고(故) 정주영 회장이 소 천 마리를 끌고 북한에 갔을 때, 그렇게 두드러도 열리지 않던 북한의 문의 열리고, 최고위원장인 김정일까지 만났지 않습니까? 그 소 천 마리가 철의 문을 연 것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름은 산성 문빛장 같으니라”(잠18:19)고 했는데, 소 천 마리가 단단히 잠긴 문빛장을 푼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잠21:14).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서 외가로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거부가 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형 에서가 문제였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원수 갚기를 기다리는 형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고민 끝에 에서에게 먼저 예물을 보내기로 합니다. 염소와 양, 낙타와 황소를 택하여 앞서 보냅니다.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창32:20). 그랬더니 정말 형이 분을 풀고 오히려 야곱에게 와서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창33:12) 하며, 호위를 자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길보아에서 시글락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시글락이 아말렉 군대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뒤쫓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군사 중 200명은 너무 지쳐 있는 관계로 제하고 400명의 군사만을 이끌고 아말렉 진영에 뛰어들어 그들을 전멸시키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과 가족들을 되찾아옵니다. 당연히 많은 전리품도 취했지요.

여기서부터 다윗의 행동을 잘 봐야 합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윗은 전투에 참석하지 않고 후방에 남아 있던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전투에 참석한 자들이 불평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동일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리품의 일부를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도 제공합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전투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이 전리품을 받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 지파의 장로들은요? 그들이 다윗의 친구가 됨은 물론이요, 다윗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라도 선뜻 내놓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사람을 얻는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은 뇌물은 쥐셔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이 보약이라면, 뇌물은 독약과 같기 때문입니다. 독약 먹으면 죽듯이 뇌물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뇌물 먹다가 갇그리 잃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굵게 하느니라”(출23:8),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케 하느니라”(전7:7).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닥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사실 부로닥발라단은 히스기야의 문병을 핑계로 유다를 염탐하는 것이었는데, 그만 히스기야가 선물에 긴장을 풀고는 보물고와 군기고, 그리고 내탕고까지 다 사자에게 보여주고 맙니다. 이일로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대로 후일 유다는 바벨론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비극을 맞습니다.

돈은 잃을지언정 사람은 잃지 말라

기계가 안 돌아갈 때 역지로 돌리면 기계가 망가집니다. 그때는 기름칠을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계속 삐걱거릴 때 역지를 쓰지 말고 살짝 기름칠을 해보세요. 잘 돌아갑니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사는 게 힘들니까? 시어머니께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아내가 요새 시큰둥합니까? 오늘 퇴근길에 머플러라도 선물해 보세요. 그냥 쭈뼛 내밀지만 말고, 한마디 보태세요. “여보, 이거 목에 두르고 다녀봐. 당신이 워낙 이뻐서 별것 아니지만 멋진 거야.” 또 남편의 주머니에 용돈을 몰래 넣고는 ‘힘내세요’라고 쪽지라도 써 넣으면 처진 남편의 어깨가 펴질 것이고, 자녀에게도 “공부하느라 힘들지? 비타민이야. 먹고 힘내. 파이팅!” 하면 공부하지 말래도 책과 씨름할 것입니다. 직장이나 거래처에도 작은 선물로 마음 문을 먼저 열어보세요.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반찬이 필요합니다. 목적을 위해 반찬은 부식인 셈입니다. 반찬이 주식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선물의 선(膳)은 반찬 선입니다. 반찬을 잘 차리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듯, 선물은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선물에 실어봅시다. 그러면 그것은 인생을 순풍에 돛단 듯이 평안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전대미문의 영광을 바라며

불신자들은 병 들거나 불행한 삶을 운명이나 팔자소관으로 돌린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가난, 슬픔, 괴로움, 고통 등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로 극복하고 초월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했는데, 이는 예수는 영광의 근원이란 뜻이다. 태양에서 빛이 발산되듯이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영광이 샘솟듯 계속 솟구쳐 나온다. 달에는 빛이 없지만 태양의 빛으로 반사돼 밤을 환히 비추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스스로 발산할 빛이 없지만 주님의 영광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다. 우리 각 사람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쓸모없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다. 나뭇가지가 봄이 오면 싹을 내는 것 같이 우리 각자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순종이기 이전에 믿음이였다. 순종은 믿음의 힘에 의해서 나온다. 즉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였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가정에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

신다는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도 그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데는 상관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굳게 믿은 것이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열 사람을 찾으신 일이 있었다. 의인이란 죄 없는 자를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3:10)고 결론짓는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한다. 믿음을 가진 자 열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알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보증된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고 기도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성경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 또한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말씀에 따른 약속을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에 걸맞는 웅장하며 신령한 기도를 해야 한다.

믿음 생활은 결코 헛된 생활이 아니다. 마치 봄을 만난 나뭇가지가 싹을 내듯이 얼마든지 주의 약속을 믿고 그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다. 다 죽은 것 같던 가지가 생기를 받아서 싹을 내고 그 나무들이 모여서 무성한 숲을 이루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숲을 이루어야 한다.

신기류 목사

:: 성경에세이 ::

그렇다고 버리나?

여보게!

연장을 쓰다가 손을 뿔 때가 있고, 연장으로 내 손을 쳐서 다칠 때도 있지. 연장에 옷이 찢길 수도 있고, 연장이 무거워 힘에 겨울 때도 있고. 그렇다고 연장을 안 쓴다면 어떻게 될까! 일에 능률이 확 떨어질 걸세.

나는 쓰는 사람이 조금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일꾼이라면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네. 당연히 지(知)와 덕(德)을 겸한 사람이라면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찌 내 입에 딱 맞는 떡이 있겠는가.

‘이 사람은 이래서 못 쓰고, 저 사람은 저래서 못 쓴다’고 하는 사람이 있네. 그럼 혼자 다 할 건가? 그 사람의 장점을 쓰면 되는 거네. 못을 박다 망치로 손을 몇 번 때렸다고 망치를 버리면 절대 못을 박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물론 망치가 남을 해치는 것이 되면 안 되듯이, 일꾼이 남을 해롭게 하거나 단체를 깨는 존재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하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감수해야 일꾼을 쓸 수 있는 거지. 누군가에게 일을 시켰을 때 정말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그를 인정해준다네. 그보다 그 분야에 해박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

이 없기 때문이고, 잃은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이지. 성경은 말씀하셨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잠14:4).

여보게!

옛말에 ‘들이박는 소가 일을 잘 한다’는 이야기도 있네. 들이박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 잘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 사람들의 단점을 보면 세상에 취할 사람이 없네. 그 사람의 장점을 봐야지. 그래야 ‘이 사람은 이래서 쓸 만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쓸 만하다’가 되는 거라네. 예수님이 제자를 택할 때 베드로의 성질 급한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밤새 그물질하는 인내심과 열정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던가.

망치는 잘 박기만 하면 되고, 포클레인은 땅만 잘 파면 되는 것 아닌가. 연장 때문에 손 좀 다쳤다고, 연장이 좀 힘들게 한다고 그 연장을 버리지 말게나. 이것이 내 목회 40년의 성공 비결이라네. 사람이 자산이고, 힘이거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쇠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잠16:4).

봉우

:: 오늘의 메시지 ::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자주 듣는 질문이다. 목사님은 말씀하신다. “무식하게 믿으시오!”

무식하게 믿는다는 것이 무얼까?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라는 것 아니겠는가?

믿음의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나는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즉 내 생각, 경험, 지식 등이 있지만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둘째, 하나님은 있지만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내 생각, 경험, 지식 등으로 사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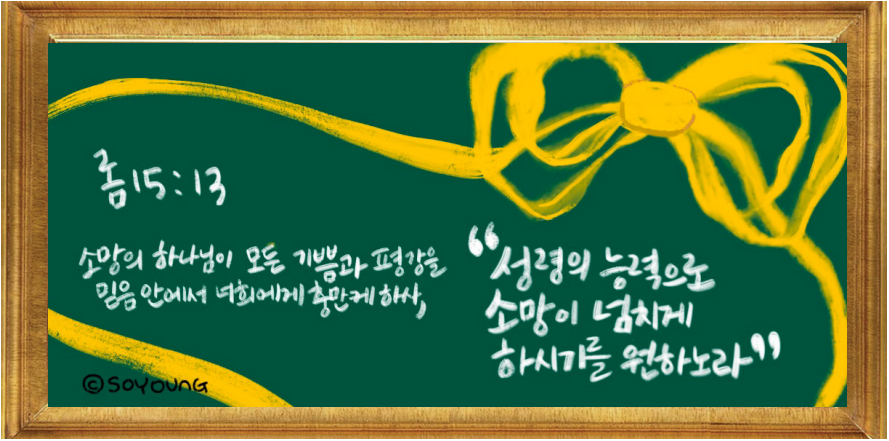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

냐민 지파요, 가말리엘의 제자요, 로마 시민권자 임에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아 자신의 모든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 예수만을 좇았다(빌3:4~9).

또한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어야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권면한다(고전3:18).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빨리 새로 준비해서 내어놓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무식하게 물을 떠다가 채운 후에 잔치 석상에 내놓았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요2:1~9).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면 칼자루 하나라도 더 들고 나서는 게 상식이지만 무식하게 성을 돌고 돌아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이뤘다(수6:3~21).

우리, 올해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원하는 모든 것에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자!

김상욱 목사



:: 생명의 말씀 ::

너는 기도하라, 나는 응답하리라

2025년 1월 11일 토요일 새벽 5시, 노량진교육관 새벽기도회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기도하라, 나는 응답하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무엇이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해주시겠다는 말씀이였다.

노량진교육관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부터 7시에 새벽기도회가 있다. 노량진 새벽기도회와 저녁기도회는 총회장 목사님께서 서울성전 건축을 목표로 기도의 불을 땀기신 것이고, 또한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함이기도 하다. 나는 ‘성공하기 원하면 편안하기를 포기하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문산교회에 새벽기도의 불씨를 옮겨 붙이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

2019년 12월, 내가 문산교회로 발령받은 바로 그다음 해인 2020년에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셈이다. 그리하여 문산교회에서 노량진 새벽기도회 장소까지는 40분이 소요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울 성전도 예비하고 계신다고 믿는다. 그리고 문산교회 성전도 기도의

독이 차기까지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확신한다. 분명 무엇이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연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은 이뿐만이 아니다. 노량진교육관 리모델링 공사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봉사하러 간 자리에서 문산교회 성도들이 총회장 목사님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딱 마주친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주셨고 말씀으로 축복해주셨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노량진 새벽기도회와 저녁기도회에 참석하시는 성도들을 위해 혹시 주울까, 배고플까 사랑으로 준비해놓은 컵라면과 생강차를 비롯한 각종 차들을 보고도 느낄 수 있다. 총회장 목사님의 그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헤아려 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의 도가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2025년 기한을 정한 목표를 향해 새롭게 달려나가기로 진심으로 축복한다. 마침내 전대미문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날을 기대하며 기도한다.

장순천 목사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귀를 기울이세요 ::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2025년, 새해 벽두 유익한 책 한 권을 읽게 되었다. 그 책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신다! 마태, 마가’라는 책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쓴 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기록된 책이다.

민족의 원수로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장 마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한 선교여행에서 도망간 마가. 이들이 개과 천선의 과정을 밟으며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예로부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을 달고 산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나 나의 신뢰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아’라는 자기 위안을 가지고 말한다.

그럼에도 마태와 마가는 철저하게 변하였다. 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이들을 고쳐서 쓰신 것이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에 자신의 모든 지위를 버리고 그분을 즉시 따르고, 마가가 회심하고 베드로의 양아들로 주의 일에 충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마태, 마가 외에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은 고쳐 쓰셨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에서 예수를 위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된 바울, 난폭한 성질의 동네 강패 어부에서 예수님의 1등 제자로 변화된 베드로, 살인자이자 소심한 말더듬이에서 이스라엘 민족 300만 명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민족의 지도자 모세, 서출의 아픔을 이겨내고 길르앗 최고 용사가 된 입다까지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고쳐서 사용하시어 자신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총회장 목사님은 ‘버리는 것을 고쳐서 쓰는 게 목사야’라고 하시며 “목사는 버려진 사람, 망한 사람, 교만한 사람, 소경, 병어리, 귀머거리, 가난한 자, 죽은 자 등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서 신실한 일꾼으로 만들 책무가 있다네!”라고 하신다. 예수 이름만이 사람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고쳐서 쓰실 수 있다. 죄인 중의 괴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처럼, 방배동 제일의 사업가가 세계 74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이초석 목사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이 되어보자. 하나님이 고치시면 사람은 변한다.

송현혜 생도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딱 한 가지 끊기

30년째 댄스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진영은 30대 때보다 50대인 지금이 더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자세도, 체력도, 컨디션도 젊은 시절보다 훨씬 좋아졌다고요. 그는 40대 초반에 처음으로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노화관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대요. 환갑까지 무대에서 춤을 추겠다는 오랜 꿈이 있기 때문이지요.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운동선수처럼 생활하고 식습관을 철저히 개선했다죠. 그러던 어느 날 흰머리를 뽑았는데 뿌리가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차차 흰머리가 나지 않게 되었다네요. 그는 소속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피부과 케어를 받지 않는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체 뭘 먹어서 그런 거죠? 뭘 먹으면 그렇게 되나요?’ 박진영의 대답은 묻는 이들을 뜨끔하게 만듭니다. “좋은 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에 부쩍 관심이 커진 저의 유튜브에는 온갖 건강과 관련된 추천 콘텐츠들이

:: 프롬 인터넷 ::

외모보다 내면

제갈량이 아내감을 찾고 있을 때, 스승인 황승언은 “나에게 딸이 있네. 비록 노란 머리에 피부색은 검어 보잘 것 없지만 재능만은 탁월하여 자네의 배필이 될 만하네.”라고 권하였고, 제갈량이 이를 승낙하자 황승언은 딸을 마차에 태워 데려다주었다. 제갈량이 결혼하고 첫날밤 신방에 들어갔는데, 황 씨 부인이 상상 이상으로 너무 못 생겨서 방을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신부 황 씨가 제갈량의 옷깃을 잡아끄는 바람에 옷이 뜯겼다. 황씨 부인은 옷을 받아 기워주겠다고 하는데, 바느질을 듣성듣성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갈량은 바느질한 옷을 받아마자 신방을 나와 마당을 땀돌다가

올라옵니다. ‘저속노화 식사법’이라던가, ‘혈당 스파이크 잡는 법’이라던가, ‘최근 젊은 암 환자가 폭증하는 이유’, ‘체장암 걸릴 확률 높은 사람’ 등등. 제목이 눈에 띄어 동영상 클릭해보면 몰랐던 내용은 하나도 없더군요. 예방법을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게 아니었어요. 금주하기, 금연하기, 과로하지 않기, 정제 탄수화물과 액상과당 끊기. 사실 우리는 몸에 나쁜 게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평생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지만, 몸에 좋지 않은 과자나 젤리 같은 간식은 입에 달고 삽니다. 시럽이 많이 들어간 달콤한 음료도 즐겨 마셨고요. 그러다 근력 운동을 시작한 작년을 기점으로 매년 한 가지씩 몸에 해로운 것을 끊기로 다짐했습니다. 식생활을 한꺼번에 바꾸기란 여간 어렵지 않고, 또 여러 가지를 하려다가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1년에 딱 하나만이라도 끊기로 한 거죠.

‘과자를 끊어볼까?’ 했는데 며칠은 잘 참다가 하루에 몰아서 먹는 저를 발견하고는 일단 비교적 끊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기

새벽녘이 되어서야 신방으로 들어가 한쪽에서 잠을 청했다.

날이 밝아 다시 옷을 보았더니 듣성듣성기운 줄 알았던 옷이 툭로 박아놓은 것처럼 고왔다. 제갈량의 부인은 알고 보니 바느질에만 솜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없었다. 제갈량은 점차 부인의 재능과 됴됨이를 인정했다. 아니 오히려 부인의 도움으로 결혼해지고, 승상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

제갈량이 웅중에 살 때, 손님의 방문이 있어 아내 황 씨에게 국수 준비를 부탁하니 바로 국수가 나왔다. 제갈량이 그 속도를 기이히 여겨 후에 몰래 식당을 엿보았더니, 몇 개의 나무 인형들이 나는 듯이 보리를 자르고 맷돌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아내에게 이 재주들을 전수받아 제조 방법을 이용하여 식량 운송용 목우유마를

로 했습니다. 그게 탄산음료였어요. 피자나 치킨을 먹을 때 습관적으로 마시던 탄산음료를 물이나 탄산수로 바꾼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액상과당이 첨가된 음료는 아예 마시지 않고 있어요. 기쁜 변화입니다.

2025년 새해부터는 좋아하는 간식 중에 설탕 덩어리인 젤리를 끊기로 했습니다. 입이 심심할 땐 집에서 썰어온 당근이나 방울토마토를 먹고 있어요. 아직 과자를 끊지는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젤리만큼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안 먹고 살 듯합니다. 다음 해에는 도넛, 다음 해에는 아이스크림, 그렇게 매년 몸에 안 좋은 한 가지를 끊어내며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진 한해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튼튼한 몸으로 오래오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니까요. 올해 여러분이 끊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6:19~20).

신은혜

만들기도 했다.

제갈량은 늘 깃털 부채를 들고 다녔는데, 이는 아내 황 씨가 부탁한 일이다. 황 씨가 제갈량에게 말했다. “당신은 유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당신의 표정이 환했지요. 하지만 조조에 대해 말할 때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군요. 손권을 언급할 땐 고뇌에 잠긴 듯 보였고요. 큰일을 도모하려면 안색에 곧바로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침착해야 해요. 이 부채로 얼굴을 가리세요.” 세월이 지나면서 제갈량의 아내는 ‘추녀’라는 이미지 대신 ‘현명한 아내’로 불렸다. 외향보다 본질을 보라. 그릇보다 음식 맛이 중요한 것 아닌가. 맛을 보기 전에 평가하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16:7).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2

미국 인디애나주의 마트에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한 남성을 직원이 붙잡았지만, 자신이 여성이라면서 여성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여성 화장실에 들어간 그는 뒤에 들어온 여성을 성추행했습니다. 영국의 한 남성은 사람을 칼로 찔러 남성 교도소에 수감된 직후, 자신을 여성(트랜스젠더)이라고 주장하여 여성 교도소로 이감되었는데, 4명의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캐나다의 한 남성은 더 저렴한 자동차 보험료를 적용받기 위해 ‘자신을 정신적으로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성별을 바꾼 후,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리아 토마

스는 미국 대학스포츠협회가 주최하는 여자 자유형 500야드 경기에서 눈에 띄는 격차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해군 출신의 트랜스젠더 격투기 선수 팰론 폭스는 경기에서 상대 여성 선수에게 2분 만에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남성은 ‘여성화’ 호르몬을 복용한 지 2년이 흘러도 생물학적 여성보다 골밀도와 근육량에서 우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따른 출전 규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할 것을 강요당한 여성 선수들은 땀과 노력의 대가를 부당하게 빼앗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실행되거나 안전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호히 말하건대,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창1:27). 성별은 옵션이 아닙니다. 남자는 날 때부터 남자요, 여자는 날 때부터 여자인 겁니다. 물론 성 정체성을 갖지 못한 자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은 불법이요, 죄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감나무가 배나무가 될 수 없고, 장미가 국화가 될 수 없는 법,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법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하며, 인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명관